

‘NH 뒷북 압수수색’ 논란...국수본 “법원 휴일 낀 탓” 해명

“법원 쉬는 휴일 있어...발부 후 집행한 것”

“검찰과 유기적 협조 잘 된다...협력 필수”

경합 범위 사건...“인지 시 검찰이 할 수도”

특수본 출범...전국 신도시·개발 의혹 규명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이 일명 ‘뒷북’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검찰과 협조를 추진하면서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이뤄진 LH 본사 등 압수수색과 관련해 “저희가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언론 발표 이후 3일 고발인 조사,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쉬는 휴일이 끼어 월요일에 발부돼 집행했던 것”이라고 설

명했다. 검찰과 관계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협의회 있었고 유기적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며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기 때문에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직자 연루 정황 등 경합 범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한 것은 검찰이 계속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인지한다면 검찰 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본격 운영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특수본 본부장은 경찰 국수본부장이 맡았다.

특수본에는 경찰 외 조세·금융·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은 국수본 본부에 일부, 나머지는 수사 실무를 진행하는 시·

도경찰청에 파견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LH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신도시, 도시 개발 관련 전반으로 조사 폭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LH 직원 투기 의혹은 전남 사무실, 피의자들 주거지 대상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나온 토지 개발 관련 도면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대면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포천시 공무원과 시흥시의원 관련 의혹도 경기북부청과 경기남부청이 각각 다루고 있다. 또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부천 대장지구 등 관련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본 출범 이후 전국 단위의혹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투기 관련 민원,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 자체



첩보를 수집하면서 필요 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강도는 넓히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마스크에 적힌 해고노동자들의 이름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이름과 회사명이 적힌 마스크가 걸려있다.

나주 산란계 농장서 AI 의심축 발생...정밀검사 중

평소 4~5마리 보다 많은 닭 100여마리 폐사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장 1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환축이 발생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나주 봉황면 산란계 농장에서 평소 4~5마리 보다 많은 닭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전체 사육사 5동에서 산란계(닭) 21만4000마리를 사육 중이

며, 농장주 A씨는 폐사율이 증가하자 방역 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 당국이 긴급 출동해 실시한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인 닭이 나온 가운데 현재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나주시는 H7N7형 AI환원이 검출되면 모두 살처분하고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km 내 농장의 동일 축종은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지만 산란계 농장이 없어서 추가 살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의 반경 10km 내 방역지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31개 농가 닭오리 105만8000여 마리에 대한 AI 검사에 착수했다.

기동취재본부

매매용 중고차 훔친 카자흐스탄인 3명 구속영장

도난 차량 재유통 정황...조직 범행 추정, 공범 여부 수사

회수 차량 내 마약류 발견...‘상습투약’ 태국인 6명은 구속

광주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보관 중인 차량을 훔친 카자흐스탄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회수한 도난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토대로 태국인 6명을 검거한 데 이어, 관련 수사도 벌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고차 매매단지 내 판매 차량 7대를 훔쳐 몰고 다닌 혐의(특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새벽 시간대 광주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 주차장 등에서 도난당한 판매용 중고차 7대를 잇달아 훔쳐 이 중 4대를 몰고 다닌 혐의다.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한 이들은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일부 중고차가 시승객 편의를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진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에 보관된 열쇠로 손쉽게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차를 또 다른 차량 절도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부산·경기 안성·경남 함안·전남 해남 등지에서 도난 차량 4대를 회수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1대를 추가로 훔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지인 부탁을 받고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뿐이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차량 회수 과정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태국인 일당도 덮이게 잡혔다.

회수한 도난 차량을 쫓던 경찰은 차내에 마약류를 보관한 태국인 30대 남성 B씨를 지난 5일 붙잡았다. 이후 B씨를 추궁,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투약한 태국인 5명을 추가 검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씨 등 6명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B씨 등에게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 일당이 훔친 차량을 무등록(대포) 차량으로 바꾼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도난 차량 중 일부가 재판 등 유통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도난 차량 3대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차량 도난 사건과 마약 범죄에 대해 각각 전담팀을 꾸려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